

미국의 정치와 크리스마스 -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

심재승 교수

(Dordt College)



미국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대중문화가 점차 다문화, 다종교, 다원화되면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사회의 반응도 지난 20년간 많이 나타났다. 넓게는 지방정부나 공공장소에서 독특한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설치할 것인가로부터 작게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예를 들어서 커피 컵의 디자인이나 상점에서 직원들

이 건네는 성탄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자가 법적인 이슈라면 후자는 대중문화의 인식에 관한 이슈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미국 대중문화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둘 다 신앙과 문화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던 때부터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성탄 인

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부터 이 이슈는 복음주의 신앙과 정치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만들었다. 신앙과 문화/정치 사이에 관련된 크리스마스 이슈들은 기업과 상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Happy holidays”와 “Merry Christmas” 사이의 선택으로 단편화, 상징화되고, 그 사이의 갈등을 기독교에 대한 핍박 또는 크리스마스 전쟁 (war on Christmas)으로 보도록 고착화하였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과된 신앙과 문화의 이슈가 보수적인 뉴스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 전파되면서 문화 안에서의 신앙의 문제는 정치-대중 매체로 말미암아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 이슈는 미국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기독교와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 있다는 견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보수매체를 진행하는 Bill O'Reilly와 Peter Brimelow에 의하여 전파되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미국 사회에서 대기업이나, 상점,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검열되고, 삭제되고, 배척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을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 즉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한다. 그것을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Happy holidays”를 용인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므로, 그 다음 도전은 낙태요 그 다음은 안락사를 인정하라는 점진적인 세상문화의 도전이라고 본다. O'Reilly는 Fox News에서 올해는 특

별한 해라고 즐거워하였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크리스마스 전쟁을 치러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올해 ... Merry Christmas!라고 말하지 않는 상점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첫해가 되었다.” 올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크리스마스 전쟁에서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Billy Graham의 아들인 Franklin은 일부 공공기관이 기독교 이미지를 설치할 것을 거부하거나 일부 공공병원이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지 않는 것을 크리스마스에 대한 노골적인 전쟁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부로 이해한다. 그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 문화의 증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로서 “자만, 교만, 무정함, 사나움”이 무성한 시대라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이러한 논리는 사회에서 복음을 긍정하려는 기독교적인 열심과 경건을 반영한다. 이 논리는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음에 관련하여 교회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사회가 복음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으로 보는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회에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American Family Association이나 Liberty Counsel 과 같은 복음주의 보수 신앙 단체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와 기독교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사용하지를 거부하는 기업의 리스트 (Naughty or Nice List)를 매년 작성하며 배포하는 것에 잘 나타난다. 때로 그것은 특정 기업

백인 개신교 지배적이던 사회가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상실감을 경험한 그들은

사회에 대하여, 특별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기독교 이슈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였다.

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는 북미 사회가 다문화-다종교 사회로 변화된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발버둥일까 아니면 아직도 기독교가 북미 사회에 기독교권을 가지고 있다는 과거 시대에 대한 동경일까? 또는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경건함의 표현일까? 그것이 경건과 열심의 반응일 수 있어도 교회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문화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재의 결과이며 반기독교적 감성을 부추길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논리는 기독교 신앙을 한 두 가지 특징으로 단편화시킨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 연말에 인사를 건네는 용어와 상점 장식으로 단편화되어, 정치적으로 형성된 구도에서, 공평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는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논쟁되는데 이는 우리 마음을 매우 거북하게 만든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신앙에 관하여 한 인터뷰들, “나는 사실 하나님께 별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건 내가 별로 용서받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잘 지낸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실천에 대한 좀 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부 복음주의의 사고의 근저에는 그들이 미국 문화의 변화로부터 겪은 상실감과 미래를 향한 기대가 어려웠다. 미국의 대중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대부분 기독교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어한다. Happy holidays를 더 선호한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41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줄어들었고, 현재 13퍼센트의 미국인만이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말을 들을 때에 개인적으로 불쾌해진다고 한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 있다고 믿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난 2012년의 68퍼센트로부터 현재 57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는 Merry Christmas가 현재 대중적인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Happy holidays도 그와 비슷한 인사로 기독교 신앙에 거부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끼치며,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므로 신앙-정치-문화에 변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그에게는 손해나지도 자금이 들지도 않는 적절한 언어 서비스인 셈이다. 다수의 복음주의

자들은 오바마 시절에 행해졌던 성전환자들의 인 권보호,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 삼의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의 제공, 종교가 다름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거부한 기업주인들에 대한 고소 등을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표현하는 정치적으로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언어에 대한 반감을 키워왔다. 32퍼센트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의 신앙이 폄박 당한다고 주장하며, 76퍼센트는 장차 미국에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더 많은 폄박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응답한다. 사실 미국인 들은 9/11 이후 대중적인 두려움이라는 증세를 앓아왔다. 거기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타당한 언어와 포괄적인 언어의 사용에 대한 요구는 그들에게 일 종의 전체주의적인 억압으로 다가왔다. 백인 개신 교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불만을 표출 할 적당한 창구를 찾지 못하였으며 사회가 인정하 는 적합한 언어가 아닌 거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비사회적이고 열등한 사람 취급을 받도록 하였다. 미국인 중 정치적으로 적합한 언어의 사용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71퍼센트가 그것이 문제임을 지적 하였다. 그들이 소리치고 싶었던 핵심은 누군가 그 들을 대변하여 백인지배적이던 사회의 종말에 대 한 불만을 표출하고, 누군가 나와서 그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약속한 사람이 트럼프였다.

백인 개신교 지배적이던 사회가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로 변화해가면서 상실감을 경험 한 그들은 사회에 대하여, 특별히 상징적으로 중요 한 기독교 이슈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였다.

여기 다루고 있는 이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억 압이 아니라, 다문화된 미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기쁨을 누릴 것인가이다.

위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 인을 포함하여, 미국에 그런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조직적으로 또는 공공적으 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폄박하지 않는다. 일부 기독교 그룹이 연말에 특별한 기득권을 주장해서 약간의 문화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종교적인 이미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북미 문화 자체가 기독교나 예수의 탄생을 폄박 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크리스마스는 연 방정부 차원의 공휴일이다. 그래서 독특한 종교적 이미지를 정부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미국은 헌법상 기독교 국가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Happy holidays 라는 인사말은 Merry Christmas와 함께 100년 이 상 사용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Happy holidays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성탄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거 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이고 문화적 인 배경에서 상점의 직원이 Happy holidays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은 고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려 는 포괄적인 언어이자 (inclusive language) 비지 니스 수단이다. 사실 월마트, 메이시나 시어즈 백 화점, 그리고 스타벅스에 많은 이들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비종교인들이다. 포괄적인 언어는 사회 의 모든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배려하는 표현으로 써 현재 북미문화에서, 특별히 학교와 공공기관에

어두움이 다스리는 세상에
 빛이라는 왕이 오심 자체가
 전쟁의 시작이다.
 성육신 자체가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왕으로 오심으로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혁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과정에서 불법이민자 (illegal immigrant)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였다. 그보다 정치적으로 적합한 언어는 합법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이다. 이전에 handicapped people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지금은 specially-gifted people이라고 부르며, 이전에 Negro또는 Black American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African American이라고 부른다. 정치적으로 적합한 용어의 요점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불법 (illegal), 장애인 (handicapped), 검둥이 (negro) 또는 흑인 (black) 이라는 낙인과 판단을 포함하는 용어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적합한 언어와 포괄적인 언어의 사용의 배경에는 언어가 인권을 탄압하거나 차별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권을 증진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일치를 도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언어의 사용은 종교-문화행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종교인에게 기독교적으로 독특한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보다 Happy holidays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요점은 미국사회가 더 이상 백인지배적인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다종교적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부요 핏박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과 그에 대한 신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공평한 언어와 표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에 대한 신앙은 교회와 개인 영역에 속한 것이며, 미국의 헌법과 문화는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그러한 기독교적인 신앙을 반대하지 않으며, 사실 과거에 그래 왔던 것처럼 Happy holidays로도 Merry Christmas와 같은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의 의미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의 의미는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기간동안 주고받는 인사말이 Merry Christmas인가 Happy holidays인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느낌의 차이로 제한할 수 없다. 그것이 느낌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전쟁의 의미는 성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빛과 어두움이라는 세력간의 전쟁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

음서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과 달리 그의 탄생과 구속역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5, 14). 죄의 굴레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인류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을 맞이한다. 이 사건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극심한 대결의 현장에서,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어두움이 다스리는 세상에 빛이라는 왕이 오심 자체가 전쟁의 시작이다. 성육신 자체가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왕으로 오심으로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혁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죄로 가득하던 세상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2-7). 이 모든 메시아의 역사는 그의 탄생과 순종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오직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된 백성이 자신의 역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성탄이 요구하는

바, 빛과 어두움 사이의 전쟁에, 말씀이 육신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전쟁은 신앙고백이나 종교적 활동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떤 인사로 맞을 것인가, 커피샵의 컵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는 상점의 연말 장식을 어떠한 언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화적인 느낌이나 감성보다 훨씬 깊고 절실한 전쟁이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지금도 치러지는 빛과 어두움 사이의 전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빛을 증거함이란 그 빛이 오셨음에 대한 지적이거나 신앙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가 빛으로 내 안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현실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빛이 어두움이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비취고, 내 삶과 사회를 비춤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신앙인데, 그 신앙은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된 것으로 증거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14). 빛된 삶의 충실한 증거들이 신앙고백과 결합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전쟁에 참여한다.



글 | 심재승

심재승 교수는 그림을 그리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거기서 회심하여 칼빈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칼빈신학교에서 M. Div와 조직신학으로 Ph. D.를 공부하였다. 현재 미국 아이오와주 소재의 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다. 조직신학과 함께 기독교 교육, 세계관 교육, 공공신학에 관심이 많다. IAPCHE와 관련하여 교수개발 프로그램에서 강의하였으며, 범아시아 아프리카 기독교대학 연합체인 PAUA의 연구소 소장으로 선교지 기독교대학의 교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